

일본의 신화와 독도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 편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서 『고사기』(712년 완성)에는 일본의 신들이 일본열도를 만드는 이야기가 적혀 있다. 그리고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 땅과 섬들이 『고사기』가 집필되었을 때에는 일본의 어디였는지도 적혀 있다. 예를 들면, 현재의 대마도는 당시의 이름인 진도(津島)로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홋카이도는 당시에는 일본 영토가 아니었기 때문에 『고사기』의 열도창조 이야기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오키나와나 오가사와라 제도도 『고사기』에는 나오지 않는다. 아직 일본영토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럼 지금 일본과 한국 사이에 문제가 되어 있는 독도(일본명 : 다케시마)는 그 이야기에 적혀 있는가? 아니다.

그렇다면 독도는 종래 일본의 고유영토가 아니다. 홋카이도는 19세기에 개척이 시작되었고 오키나와는 19세기 후반에 일본에 편입되었다. 그래서 홋카이도와 오키나와도 일본의 고유영토가 아니다. 두 지역을 가리켜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말하는 일본인은 없을 것이다.

일본에서는 8세기에 '교키(行基)'라는 스님이 일본 전국을 걸어 다녔고 많은 사람을 위해 봉사했다. 그리고 그는 그 과정에서 '교키도(行基圖)'라고 불리는 일본지도를 완성시켰다. 이 지도는 17세기 초까지 일본의 공식지도로 사용되었다. 그 '교키도'를 보면 교키 스님이 지도를 만들기 위해 『고사기』를 **참고로 했다고** 느낄 만큼 교키도는 『고사기』의 열도창조 이야기의 내용과 잘 일치한다. 물론 독도는 '교키도'에는 없다.

생각하면 현재 일본에는 3가지 영토문제 존재한다. 홋카이도의 크릴열도(북방영토), 독도, 오키나와의 센카쿠열도 등 3가지다. 이 섬들은 모두 원래 일본의 고유영토가 아닌 지역이거나 왕국이었던 땅이다. 이상하게도 원래 일본의 고유영토가 아니었던 곳에 현재 일본의 영토문제가 모두 존재한다.

일본의 정사로서 대외용으로 편찬된 역사서 『일본서기』(720년 완성)에는 하늘의 신들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 『일본서기』의 신대(神代)에는 일본 열도를 낳은 이자나기 와 이자나미, 그리고 그 아이이며 일본의 시조신이 된 여신 아마테라스와 그 동생 스사노오 등으로 구성된 가족이 등장한다. 하지만 아마테라스의 동생 스사노오는 매우 난폭했기 때문에 신의 나라로부터 추방당

해 지상에 강림하게 되었다. 『일본서기』에는 스사노오가 내려온 곳이 신라의 '소시모리'라고 적혀 있다.



8세기에 작성된 교키도. 독도는 없다.

일제가 조선에서 '소시모리'이란 강원도 춘천에 있는 '우두산'이라고 결론지었다. 조선 총독부는 소시모리를 한국어 발음으로 보고 '소의 머리'라는 의미라고 생각해 소시모리는 춘천의 우두산(牛頭山)이라고 단정한 것이다. 그리고 나서 조선 총독부는 우두산에 스사노오 신사를 건립했다.

총독부는 스사노오란, 신의 나라에서 내려온 신이 웅녀와 혼인하고 태어난 한국 신화의 단군이 었다는 이야기를 꾸며냈다. 그리고 태고의 옛날부터 아마테라스와 스사노오가 형제였던 것처럼, 그들의 자손인 두 민족 바로 일본과 조선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한일 합방을 정당화하는 이야기를 만들어 조선지배에 이용했다.

그런데 『일본서기』는 신라에 내려온 스사노오의 행동을 후속으로 어떻게 기록했는가? 스사노오는 잠시 신라에 있었지만 그곳이 마땅찮아 동쪽으로 이동했다. 그리고 동해와 마주친다. 스사노

오는 그곳에서 배를 타고 동해를 횡단했고 도착한 곳이 현재의 시마네 현 이즈모(出雲)였다.

스사노오는 이즈모가 재목과 금은이 많은 곳이라고 알게 되었고 목재나 금은을 신라에 운반하기 시작한다. 스사노오는 신라와 이즈모 사이를 왕복했다고 『일본서기』에 적혀 있다.

일제 시대에는 스사노오를 '신라대명신'으로 모신 신사가 이즈모에 존재했다. 사실상 스사노오의 이야기는 신라에서 이즈모를 통해 일본으로 정착한 한민족의 역사를 상징한다고 해석되기도 하다.

강원도 해안에서 강통 등을 바닷물에 던지면, 대부분이 시마네 현과 돗토리 현에 표착하다. 즉 해류가 강원도에서 시마네, 돗토리 쪽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울릉도에서 강통을 흘려도 똑같이 시마네, 돗토리 쪽으로 표류한다. 그렇다면 강원도와 울릉도 주민들은 해류를 타고 몇 번이나 강원도와 시마네, 돗토리 사이에 위치한 독도를 목격했을 것이다.

일본 에도막부의 친척 미토번(水戸藩)이 편찬한 『대일본사』의 '234권, 고려조'를 보면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관홍 원년(1004) 고려의 지방인 울릉도 사람들이 표류해 이나바(因幡)에 이르렀다. (중략) 신라 시대에는 우르마 섬 사람들이 표류해 왔지만 우르마섬이란 울릉도다(현대어 역)"

이 기록은, 돗토리의 이나바에 울릉도 사람들이 도달한 사건에 대한 기술이다. 그리고 『태종실록』 34권, 8월조(1417)에는 "왜구가 우산 무릉에 침입했다"라고 적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우산은 우산도, 즉 독도다. 무릉이란 무릉도, 즉 울릉도다. 15세기에 접어들어 조선왕조는 독도를 우산도로 표기하기 시작했고 우산도가 조선땅이라는 인식을 명확히 갖게 되었다. 그리고 신라나 고려 시대부터 울릉도 사람들이 시마네, 돗토리 쪽에 표류한 기록들이 위와 같이 남아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고사기』이나 『일본서기』에는 스사노오 이야기가 아닌, 또 하나의 천손강림의 이야기가 실려 있다. 일본의 시조신인 아마테라스의 손자인 니니기가 규슈 구마모토(熊本)의 다카치호(高千穂) 산으로 강림하는 이야기다.

흥미롭게도 니니기는 "여기는 한국이 잘 보이는 아주 좋은 땅"라고 말하면서 다카치호 산에 내려왔다고 적혀 있다. 이 이야기는 한반도 남쪽에서 규슈로 건너간 한민족을 상징한다고 해석된다. 이즈모로 건너간 한민족과는 다른 흐름인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다카치호 산에서 한국이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고대의 구마모토 사람들이 다카치호 산 옆에 있는 산에게 '가라쿠니다케(韓国岳 : 한국산)'라는 이름을 붙이고 니니기의 이

야기를 보완했다. 현재 가라쿠니다케는 아주 좋은 등산 코스로 유명하다.

그런데 신화에 따르면 니니기는 스사노오의 후손인 오쿠니누시노미코토(大國主命)에 대해 국가 전체를 양보해 달라고 요청한다. 이에 오쿠니누시는, 본인을 위해 이즈모에 큰 신사를 만들어 달라고 말한 뒤 지상을 니니기에게 물려주고 저승의 지배자가 되었다. 이 이야기는 아마테라스와 니니기로 대표되는 한국 도래민족이 스사노오와 오쿠니누시로 대표되는 이즈모의 다른 계통의 한국 정착 민족을 굴복시키고 그 대표자를 처형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현재 큰 신사로 남아 있는 이즈모 대사(出雲大社)의 제신은 오쿠니누시다.

그리고 그 후 니니기의 손자 진무(神武)가 나라(奈良)에 들어가 천하를 평정했고 일본의 초대 천황이 된다. 이 계통이 문헌상 현재까지 계속되는 일본의 천황가인 것이다.

니니기의 후손들은 『고사기』, 『일본서기』에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기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쿠니누시의 후손인 시마네, 돗토리 주민들이 17세기에 울릉도와 독도를 왕래함으로써 현대의 독도 문제의 발단이 만들어졌다. 집요하게 독도는 일본영토라고 주장하는 아베 총리는 시마네의 서쪽 이슥 현인 야마구치 현 출신이다.

일본의 천황가로 이어진 주권자들은 독도를 일본땅으로 보지 않았다. 그러나 도 하나의 흐름인 스사노오와 오쿠니누시의 자손인 시마네 등 지방사람들이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우기게 되었다. 현재 일본의 황태자 나르히토는 2014년 2월, 생일을 맞이하여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현행 헌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발언을 했다. 한편 현 아베정권은 일본의 재무장을 추진하고 있다. 신화는 천황이 된 진무가 이겼다. 현재에서는 어떤 전개가 될 것인가?

2014.2.25.